

4장 참된 부요를 누리는 자 : 8복

8복의 수수께끼

산상수훈이란, 우리 몸을 둘러싸고 있는 바로 그 공간으로부터 우리 곁으로 다가온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실체 안에서, 실제로 살아가는 법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을 간명하게 추려 놓은 글이다.

□산상 수훈의 두 가지 질문

①어떤 삶이 행복한 삶인가? 진정한 유익은? 어떻게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이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삶에 대한 확신이 정확히 누구에게 있고 누구에게 없는지는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많은 혼돈을 불러 일으킨 문제였다. 이 문제를 분명히 하시려고 예수께서 주신 말씀이 이른바 8복이다.

②누가 진정 선한 사람인가?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닮은 모습을 보일 자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예수의 대답은 다음 장에서 살펴볼 것이다.

□무엇이 인간의 행복인가에 대한 그분의 가르침은 그 전체가 아주 독특하며 남다른 힘과 깊이가 있다. 그 힘과 깊이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비교 분석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겠지만, 여기서는 단지, 예수의 가르침의 내용 그 자체에 집중하려 한다.

□자! 그러면 첫번째 질문, 예수의 기준으로 보아 행복한 삶을 사는 자는 누구인가?

영동한 독

인류의 문학적, 종교적 보배로 손꼽히는 8복은 종교적 통찰과 윤리적 영감이 가장 뛰어난 표현 중의 하나로 인정을 받고 있지만, 핵심 질문, 8복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여 살아갈 것인가? 그분의 복이 일관성 있게 복이 되지 않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영동한 복이 되고 말았다.

□영동한 독이란?

①“그렇게 되는 것- 가난한 자, 슬픈 자, 약한 자, 온유한 자 등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②하나님의 선호 목록에 들지 않는 혹은 듣고 싶은 마음이 없는 데 대한 양심의 죄책감에 눌러 사는 것으로,

③이 죄책감은 기독교 역사에 끈질기게 지속돼 온 암울한 색채의 주범으로, 역사와 개인의 생활에서 신앙의 긍정적인 힘을 크게 약화시켜 왔다. 반대로 자신이 “복있는 자”에 부합된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보란 듯이 교만에 빠지곤 한다.

문맥이 주는 교훈

예수 자신이 8복을 어떤 의미로 주셨는지를 알면 우리가 8복에 대해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될 것을 깨닫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8복에 담긴 예수의 가르침이 그분의 삶 전체의 중심 주제에 대한 설명과 전개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 주제란 곧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8복에 이 주제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을까?

□시연후의 강의

○예수가 천국과 우리가 얼마나 가까운지, 그 가까움의 정도를 실감나게 보이신 방법으로,

○지금 산상수훈을 듣는 이들은 이제 막 예수를 통하여 천국을 받은 이들이었다.

□실제적 의미

○“천국이 저희에게 임할 때에는 영적으로 무일푼인 자들, 곧 영적으로 파산한 가난하고 모자란 자,

영적인 거지, '종교'와는 거리가 먼 자들이 복이 있다.
 마 5: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요"라는 말씀은 전통적이고 문자상 정확한 표현이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으로 가난한 그들에게 가까이 온 결과이다.
 ○그러나, 오늘날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에는 최초에 담겨있던 영적 빈곤의 의미가 아니라 놀랍게도 칭찬할 만한 훌륭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되고 말았다.

"영적 무일푼"도 천국의 손길을 누린다

- 영적 무일푼인 자들이란,
 - 성경을 모르고 종교란 말도 들어본 적이 없는 무지한 "한낱 범인"일 뿐이다.
 -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와의 접촉을 통해 천국의 통치가 임하고, 이제 그들도 하나님의 손안에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치유된 복 있는 자들이 된다.
- 오역의 예
 - "자신이 가난한 것을 아는 이들은 얼마나 복된 자인가?" -NEB초판
 - "자신의 영적 빈곤을 아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요" -버클리 역
 - 오류의 원인 : 하나님이 바라시거나 심지어 요구하시는 뭔가 좋은 조건을 찾아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정당한 근거로 삼으려는 우리의 집요한 필요에 의한
- 진정한 의미
 -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음은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이거나, 영적 빈곤이 천국에 합당한 자격 조건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복음의 선포를 또 하나의 율법주의로 대치하는 것이다.
 - 정확하게는, 그 말할 수 없이 비참한 상태 속으로,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통치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이다.
 - 알프레도 에더쉴임의 변

산상수훈에서 ... 예컨데 "8복"에 붙어 있는 약속들을 각 복과 연결된 영적 상태에 대한 보상이나 결과로 보아서 안 된다. 어떤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 그의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이 아니다. 하나의 상태가 다른 상태로 자라거나 서로 인과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보상은 더욱 더 아니다. 각 경우마다 연결고리는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분이 ... "모든 믿는 자에게 천국을 열어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 방식과 반대되는 예의 정신

- 인간의 예의 정신
 - 앞서 말한 오역들이 아직도 매력적인 것은 그것이 인간의 관행처럼 굳어져 온 예의정신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 그 예의정신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8복에서 예수를 전혀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 이 오류의 어리석음은 그 장면에 예수가 계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 예의정신의 파장
 - 착한 사람은 누구나 천국이 자기 것이다. 왜냐하면 영적 빈곤을 인식하는 겸손함이나 착한 마음만 있으면 되기 때문이다.
 -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천국에 자동 입성하게 된다. 자기에게 잘 맞는 복을 고르면 되기 때문이다. 겸손하지 못하다면 어떻게든 애통하거나 온유하거나 핍박을 받으면 되기

때문이다.

○행위 구원이 아닐지라도 태도 구원이거나, “핍박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경우에는 상황과 우연에 따른 구원도 가능해 지는 것이다.

“목록”에 해당되지 않는 자들?

□치명적 오류

○“제시된 조건들-심령이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 등-이 천국입성의 자격 조건이라면, 이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복을 받을 수 없다.

○부요한 자는 가난하지 않는 자가 아닌가? 웃는 자는 애통하지 않는 자가 아닌가? 칭찬받는 자는 핍박받지 않는 자가 아닌가?

오늘을 위한 말씀이 아니다?

□산상수훈이 이 세대 또는 현세를 위해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천년왕국 또는 사후 세계에서만 시행될 말씀이라고 결론 지어버렸다. 왜냐하면

통상적인 8복의 해석은 은혜의 문제가 아니라, 특별한 조건을 성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시대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다.

□우리는 오늘의 삶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의 타당성을 부인하기보다 해석이 잘못되어 왔음을 인정해야만 한다.

○구체적으로, 8복은 복 받는 방법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다.

○8복은 우리 쪽에서 원가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아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좋아하시거나 인간에게 유리한 조건들을 제시해 주는 것도 아니다.

□8복은 예수와의 인격적 관계를 통하여 지금 가까이 와있는 하나님 나라를, 눈 앞의 현실 상황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예시한 말씀이다.

인간이 모든 희망을 포기한 현실 상황들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천국 통치가 예수 안에서 임했음을 보여주는 증거 사례를 8복은 하나하나 꼽고 있다.

□8복을 단순히 복을 얻는 방법으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기쁜 소식이 될 수 없다.

새로운 율법주의로 귀착될 뿐이다.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천국을 활짝 열어 놓는 일만은 하지 못할 것이다. 새로운 이름의 바리새주의, 천국문을 닫는 새로운 방식, 인간의 힘으로 의를 이룰 수 있는 아주 구미가 당기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낼 것이다.

영혼을 깊이 만지시는 가르침

예수의 교육 방법

□시연 후 강의

○비유사용 :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아주 친숙하고 항상 구체적인 것에 빗대어 곁에 나란히 놓음으로써 이해를 돕는 것

○주변상황을 살려 구체적으로 가르치시며 가능한 한 눈 앞의 실제 상황이나 일상 생활의 사건을 소재로 삼으신다.

일반의 통념과 습성을 바로잡는 가르침

□또 다른 강의법

당면한 상황을 지배하고 있던 일반적 통념이나 습성을 바로 잡아주시는 모습에서 그 예를 볼 수 있

	<p>다.</p> <p>○부자청년의 예</p> <p>-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의 표시라는 것이 그 시대의 일반적 통념이었고,</p> <p>-그분은 또한 “구원받는” 일에 관한 한, 전체적으로 볼 때 가난한 자가 부자보다 유리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다.</p> <p>-다만 그분은 눈앞의 사례를 활용하여 하나님과 부에 대한 일반의 뿌리 깊은 통념을 뒤집으신 것뿐이다. -아무리 부자라 한들 하나님을 부보다 덜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좋게 보실 수 있겠는가?</p>
	<p>친척들은 저녁식사에 초대하지 말라</p>
	<p>□또 다른 사례</p> <p>○누가복음 14장 “일요일 저녁식사”사건</p> <p>-이것이 친척들을 저녁식사에 청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님을 굳이 밝힐 필요가 있을까?</p> <p>-그분은 단지 특정한 사건을 기회로 삼아, 도로 값을 능력이 있는 넉넉한 이들과는 식사를 함께 하면서 정작 가난한 이들은 무시하는 세간의 관행을 바로잡아 주시는 것뿐이다.</p> <p>-우리에게 피자 주거나 받거나 하는 작은 교제권을 벗어나 어려운 이들을 대접함으로써 보다 넓은 천국 통치의 세계로 들어갈 것을 명백히 명하고 계신다.</p> <p>-그 세계는 누구와 저녁을 함께 먹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사고와 마음이 새롭게 변하는 곳이다.</p>
	<p>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례</p>
	<p>□통합사례</p> <p>○하나의 가르침에 여러 가지 “구체적인 기법”이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화에는 비유와 정황 그리고 세간의 통념에 어긋나는 사례가 한데 어우러져 있다.</p> <p>○통념을 깨는 방식 :특정 집단은 영생을 “당연히”얻는다”는 일반의 통념을 깨뜨리고 있다.</p>
	<p>이웃이 되는 법</p>
	<p>□“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p> <p>○진정한 의미 : 그 의미란, 누가 영생을 얻었는가에 대한 예수의 청중들의 일반적 통념이 인간의 마음 상태를 근거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이다.</p> <p>○교훈</p> <p>-이웃을 사랑하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니다.</p> <p>-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 규명해 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사랑이다. 누군가를 돌보아 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이웃이 되는 것이다.</p> <p>-여기서의 교훈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것 정도가 아니다. 좀더 깊이 들어가서, 그분은 “가진”자, 하나님 편에 “있는”자, “복 있는”자를 외적 조건을 보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신다. 그것은 마음의 문제이다.</p>
	<p>예수께서 이런 방법으로 가르치시는 이유</p>
	<p>□교육방법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p> <p>-그분의 교육 방법을 이해하기 전에는 가르침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고,</p> <p>-그분의 가르침이 행해지던 그 세계를 어느 정도 참작하지 않고는 그분의 교육 방법을 이해할 수 없다.</p>

-우리는 예수 시대의 유명한 스승들의 목표가, 정보를 전달하는데 있지 않고 듣는 이들의 삶에 중요한 변화를 일으키는 데 있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오늘날의 예수의 사역

- 듣는 이들의 삶의 실제 흐름에 영향을 주는 말, 그런 경험을 제공하시고,
- 그분은 자신의 가르침을 청중의 삶을 구성하는 구체적 사건과 연결시키셨다. 일상 생활에서 드러나는 듣는 이들의 마음과 습관, 그것이 예수의 말씀의 표적이었다.
- 그분은 우리 삶의 현실의 한복판, 우리의 통념 속으로 들어와 우리와 함께 움직이신다.

8복에 담긴 예수의 참뜻

누가 복음판 8복

□누가복음판 8복의 특징

- 마태복음의 8복보다 직설적으로 미화가 어렵다.
- 비록 같은 주제가 다뤄지고 있지만 여기의 상황은 마태복음과 다르다. 열 두 사도를 지명하기 위하여 밤새도록 기도하신 후이다.

□누가복음판 8복

- 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비탄과 순교를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하게 해주는 공로요 조건으로 가르쳐 온 것이 교회사적으로 사실이다.
- 그러나, 가난하고 주리고 슬픔에 잠긴 자이면서도 죄 자체만큼이나 불경건을 고수한 이들이 무수히 많다는 사실이다.
- 8복의 요지는 절대로 하나님의 승인, 구원, 복을 보장하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의 참된 모습

- 가난하거나 주리거나 비탄에 잠기거나 핍박 받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 그들은 마음을 다하며 예수를 의지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이웃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긴다.
- 그들의 마음은 믿음으로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다. 이들은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그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자들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려면 '복 있는' 자의 목록에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주장은 과거의 통념으로 눈이 어두워진 자들만이 고집할 수 있는 것이다.

8복- 하나님 나라의 선포

□그렇다면 예수가 8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려는 말씀은 과연 무엇인가? 또한,

8복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8복이란?

예수의 근본 메시지, 즉 하나님의 통치와 의가, 세상 속에 우리 가운데 인간으로 찾아오신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모든 인간에게 값없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주는 하나의 도구이다.

○그것은 관심의 가능성에서조차 완전히 제외된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을 취하여 하나님의 손길과 천국의 풍성한 공급을 누리는 자들로 제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에 대한 이러한 사실은, 어떠한 인간 조건도 하나님의 복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원으로 누구라도 찾아오실 수 있다는 것을 만민에게 증거하고 있다.

○하나님은 때로는 스스로 도울 수조차 없거나 그럴 마음이 없는 자들까지도 도우신다.

□애통하는 자들

○우는 자, 가슴이 멎은 자들, 자식을 잃은 채 가슴 찢기는 비통과 우울에 잠긴 부모 등의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며 그리로 들어가 그 안에서 사는 법을 배우면서 그들은 위로를 받고 눈물이 웃음으로 바뀐다. 이제 그들은 그런 비통한 일을 당하기 이전보다 훨씬 행복한 자들이다.

□온유한 자들

○소심하고 약하고 무른 자, 궁지에 몰려도 마땅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자들

○천국이 이들을 감싸 안으면 온 땅이 이들의 아버지의 것이다. 또한 필요할 때는 이들 자신의 것이다.

여호와가 이들의 목자시니 이들에게 부족함이 없으리이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

○매사를 옳게 바로 잡아야 한다는 열망에 불타는 이들, 자신의 실패가 너무 엄청난 자신의 죄 앞에 웅크리고 앉아 깨끗해져야 한다고 속으로 절규할 지도 모르는 자들

○천국의 신비한 힘은 과거마저 변화시킬 수 있고 인간이 경험하는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손실도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사소한 것으로 보일게 만들 수 있다. 그분은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사 최고의 의로 가득 채워 주신다.

□금홀히 여기는 자

○금홀한 마음 때문에 세상에 이용당하는 자들

○인간의 체제 바깥, 천국의 놀라운 풍요 속에서 그들은 자신의 필요를 채움 받는 금홀을 누린다. 설사 하나님께 내세울 일말의 '권리'가 그들에게 있었다 해도, 그 권리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

○자신을 포함해 아무 것에도 도무지 양이 차지 않는 이들, 완벽주의자들, 만안에게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이들

○얼마나 비참한 사람들인가! 그러나 천국은 그들에게도 열려 있다. 마침내 거기서 그들은 자신의 청결한 마음에 참 만족을 주는 대상을 찾을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분 안에서 비로소 자신이 여태껏 찾아 왔던 것, 전혀 흠 없이 완벽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

○세상에서는 애매한 중간에 끼어서 도무지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우는 일이 없는 자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는 잘못된 자들을 화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모습으로 인정된다. 하나님 자신이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기 때문이다(눅 6:35). 화평케 하는 자가 상대하는 자들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이다. 경험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잘 안다.

□의를 주장하다가 핍박 당하는 이들

○불의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인생이 파멸되거나 목숨을 잃는 경우의 사람들

○이들도 천국의 소유가 될 수 있다. 천국의 소유가 되면 그것만으로 복된 삶을 누리기에 충분하다. 해를 당할 수 없는 완벽한 안전이 이들의 것이 된다.

□"예수쟁이가 되어 미쳤다"는 이들

○"예수쟁이가 되어 미쳤다"는 이유로 욕과 핍박과 기만을 당하는 이들

○이미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 즉 천국에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큰 상을 얻었음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영원한 가족들 앞에 높이 들리워지고 그 공동체의 동행과 사랑과 자원은 이제와 영원히 우리의 유업이 된다.

□이런 식으로 8복을 이해하는 것이,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와 마음이 청결한 자의 경우에만 빼고는 무리 없이 잘 들어맞는다는 말을 듣는다. 그러나 기존의 '조작적'이거나 혹은 율법적인 해석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 두 경우에도 예외일 수 없다. 여기 제시된 해석이 더없이 신빙성 있는 것이다.

예수의 사역은 살아있는 8복이다

□ 두 가지 유명한 장면 - 예수의 삶/사역과 8복과의 연관성을 잘 보여줌

1)첫번째 장면 : 예수께서 한참 인기가 고조되던 공생애 초기에 고향 나사렛을 찾으실 때의 일이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눅 4:18-19).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들의 반응은 폭력이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

○그러나 예수께서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 열거하고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 포로 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그야말로 마태복음의 복 있는 자의 목록과 동일하다.

○인간적으로는 소망 없는 자들로 보이지만, 예수의 손을 통해 하늘 나라의 복을 알게 되는 자들이다.

2)두번째 장면 : 세례 요한은 옥에 갇힌 지 꽤 오래도록 그 안에서 예수의 사역을 주목하던 중 제자들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는 지 묻는 장면.

○요한에게 답변을 준 후 8복과 유사한 표현으로 덧붙이심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마 11:4-6)

-이 복(마카리오스)은 마태복음 5장과 누가복음 6장에 쓰인 것과 동일어이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말로서, 그리스인들이 신들의 특성인 지복의 실존 상태를 표현할 때 사용한 말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현재의 하나님 나라에서 흘러 나오는 예수의 사역이 '절망적인' 자들을 복 있는 자가 되게 한다.

□사실, 인간적으로 절망적이고 비천한 자들이 그들의 상황 속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손을 통해 맛보는 이 신분의 변화야말로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일 것이다. 위대한 반전의 핵심 내용이다.

□먼저 된 자로써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막 10:31)

○대체로 말해서, 인간의 기준으로 복된 자나 '먼저 된' 자로 간주되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비참한 자나 '나중 된' 자이며,

○인간의 기준으로 저주받은 자나 '나중 된' 자로 통하는 많은 이들이, 예수의 나라를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아 얼마든지 복된 자나 '먼저 된' 자일 수 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의 천국 통치가 만민에게 열려 있기 때문에 아무도 8복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누구나 천국 통치에 들어갈 수 있다. 천국 통치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나 자신을 향해서나 바로 이 사실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예수의 8복에 보일 수 있는 합당한 반응이다.

나의 삶에 적용하는 8복의 메시지

“복 있는 자”의 목록

오늘의 세계에서 찾을 수 있는 ‘절망적인, 그러나 복의 대상이 되는’ 이들이 당신의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일까?

예수의 목록에 나오는 이들은 시대를 초월한 절망의 조건들이기 때문에 모두 포함될 것이다. 그러나 스승이신 그분의 본을 따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더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을까? 당신 주변에 가장 불행한 자들은 누구인가?

어리석은 세상을 향한 구원

□현대의 가장 불행한 자들 : 뚱뚱한 사람, 대머리, 못생긴 사람, 늙은 사람, 성생활이 원활치 못한 사람
□우리를 통해 흘러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은 우리에게 그 꽃들보다도 더한 천연의 아름다움을 입혀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마 6:30).

□ 이것은 어리석은 세상을 향한 복음이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까닭은 그 어리석음이 많은 이들에게 생사의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있어 죄란 바로 어리석음이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이를 수 없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잃어진 영혼이 얻는 가짜 구원이 반드시 부자가 되는 것만은 아니다. 이 어리석음도 거기에 포함된다.

질문)이 세상에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보다 심각하게 망가진 자들

‘심각하게’ 망가진 이들이 있다. 마약 중독자와 이혼자, 에이즈 감염자, 두뇌 손상자와 불치병자, 정서적으로 굶주린 자와 정서적으로 죽은 자. 일일 다 늘어놓을 수도 없다.

○ ‘하늘이 치유할 수 없는 땅의 슬픔은 없다.’ 는 말은 과연 사실인가? 그렇다, 사실이다!

○그것이 바로 8복을 통해 우리 곁으로 가까이 다가온 천국 복음이다. 예수는 이와 같은 모든 이들에게 상황을 초월하여 현재의 하나님 나라의 현재의 복을 주신다.

○인류가 예로부터 지금까지 구해 온 삶의 조건, 조용하게 변화시키는 예수의 우정을 통해 그것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부도덕한 자들

□도덕적 실패자들도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분을 친구 삼을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들은 받아주신다. 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열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마저 든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들에게도 열려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악을 계속 행할 경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사람들의 섬뜩한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이거나 술 취하는 자, 후욕하는 자, 토색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이어 이렇게 덧붙여졌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이 모인 영적으로 건강한 모임이라면 어디서나 이렇게 ‘불 가운데서 건짐이 받는’ 자

들이 있게 마련이다. 모두 훌륭한 사람만 모여 있다면 뭔가 잘못돼 있다는 분명한 신호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미련하고 악하고 천하고 멸시 받는 자들을 택하시 인간적으로 높은 자들은 폐하시는 분이 기 때문이다 (고전 1:26-31 ;6장).

□그들 중에는 세상에서 지혜롭고, 영향력이 있고 사회적 엘리트에 속하는 이들도 약간 있다. 그러나, 다만 8복은 영적 거인들의 목록이 아니다. 종종 이들 '복 있는' 자들로부터 남다른 품위와 영광이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것은 그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들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광채이다.

질문)교회 내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가?

이들을 감당할 만한 영적, 시스템적 능력은 갖고 있는가?

바로 이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

□누가 소금과 빛인가?

○예수는 자신을 통하여 복을 얻는 이 평범한 '무리'를 보시며, 천국의 삶으로 이 땅의 삶을 삶답게 만들 자들은 인간의 기준으로 '똑똑하고 잘난'자들이 아니라, 바로 이들 평범한 무리라고 말씀하신다.(마 5:13-16)

○정녕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자들은 인간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어떤 자격도 성품도 갖추지 못한 이 '작은 자'들이다.

□구속 받은 공동체에 대한 바울의 시각

○8복의 복음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그는 무슨 일을 하든 인간의 재능으로서의 탁월한 말이나 지혜나 문화에 절대 의존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갈 때나 새로운 인류를 대하 때도 그는 예수의 십자가로 얻어진 것 외에는 모든 조건을 일절 무시 했다.

□당시의 왜곡 사항

○율법과 선지자는 빛나는 인간들- 부자, 배운 사람, '가문 좋은' 자, 유명란 자, 힘 있는 자 등-이 하나님의 품 안을 독차지하는 종교적 압제의 사회 질서가 정당화될 만큼 멋대로 왜곡되어 있었다.

○예수의 선포는 분명히 그들을 특권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인간적 자격이 없는 보통 사람들을 예수 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불러들였다.

□이것은 자신들의 특권 옹호에만 열이 오른 종교 전문가들에 의해 하달된 신분체제 외에는 아무것도 모른채 여태껏 희망 없이 살아 온 무지한 이들에게는, 일대 혼란을 줄 만큼 위력적인 메시지이다. 그래서 예수는 그들에게 율법을 존중하라는, 폐하지 말고 완전케 하라는 경고를 주신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마태복음 5:20 이하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에서 율법을 존중해야 하며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낮게 되어야 하는지 다음 장으로 넘어가 살펴보고자 한다.

